



12면

19~21일 '익산 문화유산 야행'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24년 4월 17일 수요일 (음 3월 9일) 제3486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전주국제영화제 사전 대표소 운영 시작 제25회 전주국제영화제 개막을 앞둔 16일 전주영화제작소 4층에서 사전 대표소가 운영되고 있다. 16일부터 18일까지는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19일부터 21일까지는 오후 4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장애인 자립 지원 거점 마련

전북 장애인종합지원센터 개소

재활치료 2개동 등 갖춰
전북 사회서비스원이 운영



16일 전주 옛 자립원 부지에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종합지원센터 개소식이 열린 가운데, 최병관 행정부지사, 정동영 국회의원 당선인, 전북자치도의회 환복위원회 위원 등 참석자들이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시설장애인의 탈시설에 힘을 보태고, 장애 아동의 사회 적응을 돕는 등 보다 체계적으로 장애인의 자립역량을 지원하는 거점 공간이 전북에 마련됐다. 전북특별자치도는 16일 장애인 자립 지원체계의 거점기관 역할을 수행할 장애인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의 개소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시설 운영을 알렸다. 이날 개소식에는 최병관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유관기관·단체장, 장애인과 가족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센터의 성공적인 운영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전주 옛 자립원 부지에 들어선 센터는 운동재활, 심리안정실, 아하도서관, 아쿠아포닉스 등 재활치료실 2개동과 체험실 4개동을 갖췄다. 이들 시설에서는 자립 욕구 조사를 통해 지원계획을 마련하고, 지역사회 자립지원 안전망을 형성하는 등 보다 전문적으로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한다. 또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재활프로그램과 일상생활에 적응하는데 요구되는 각종 체험활동을 통해 장애인의 재활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전북자치도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53억4,400만원을 투입해 옛 전주 자립원 건물 6개동을 리모델링했으며, 작년 8월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를 제정했다. 센터 운영은 작년 9월 위수탁 협약을 체결한 전북자치도 사회서비스원이 맡는다. 옛 자립원 부지에는 장애인종합지원센터뿐만 아니라 장애인고용교육연수원(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일자리종합타운(전주시), 장애인직업점형특수학교(도교육청)가 들어설 예정이다. 2027년 이후에는 장애인복지타운이 조성돼 장애인의 자립·직업 역량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병관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장애인종합지원센터가 자립을 원하는 분들이 자율성과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자립환경을 조성하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장애인이 일상의 보편적인 권리를 누리고,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현정 센터장은 “모든 도민이 차별 없이 온전한 삶을 함께 누리는 지역사회 실현을 위해 'A-HA(Active support-Happiness for All)’이라는 슬로건 하에 장애인의 능동적 참여를 중심으로 센터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김재훈 기자

세월호 참사 제10주기

“다시는 이런 참사 일어나지 않길”

전북자치도교육청
참사 희생자 추념식
추모엽서 쓰기 등 진행
서거석 교육감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최선”



16일 부안 해양수련원에서 서거석 교육감, 김명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전북학생의회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0주기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념식이 열렸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16일 부안 해양수련원에서 제10주기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추념식에는 서거석 교육감을 비롯해 김명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전북학생의회 의원 등 70여 명이 참석해 세월호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세월호 추모 영상으로 시작한 이날 추념식은 △학생대표 추도시 낭독 △교육감 추모사 △교육위원장 추모사 △추모곡 연주 △추모엽서 쓰기 △추모엽서 보내기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관련사건 4면>

서거석 교육감을 추모사를 통해 “세월호 참사 이후 10번째 봄을 맞는 이 자리에서 ‘공감과 슬픔’을 바탕으로 생명과 인간의 존엄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본다”며 “다시는 이런 참사가 우리 사회에 일어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안전은 전북교육의 가장 핵심적인 전제”라면서 “전북교육청은 지자체, 유관기관, 관련 단체와의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장은성 기자

원광대, 올해 글로벌 예비지정 대학 선정

원광보건대와 통합모델 신청... '생명산업 글로벌 거점대학' 목표로 혁신모델 제안
8월 말 예정 본 지정 위해 혁신기획서 토대 세부 실행계획서 작성 7월 중에 제출키로

원광대학교(총장 박성태)가 2024년 글로벌대학 예비지정 대학에 선정됐다. 16일 원광대에 따르면, 교육부와 글로벌대학위원회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별관에서 올해 글로벌대학 예비지정 평가 결과 단독·공동으로 신청한 65곳 중 20곳을 선정했다. 전북에서는 원광대학교·원광보건대학교가 포함돼 있다. 원광보건대학교와 통합모델을 신청한 원광대는 '생명산업 글로벌 거점대학'을 목표로 혁신모델을 제안했으며, '생명산업 연계 융합교육', '생명산업 융합밸리 구축', '생명산업 글로벌 인재양성'을 혁신 전략으로 내세웠다. 특히, 생명산업 연계 융합교육을 위한 세부전략으로 담대한 통합과 구조 조정을 통한 생명산업 특성화, 학제

및 전공의 학생 선택권 강화, 글로벌 융합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담았으며, 생명산업 융합밸리 구축을 위해서는 생명산업 글로벌 전초기지 W.I.T.H. 밸리 구축, 생명중심 지역혁신분부를 통한 지역 성장의 지속가능성 확보, 개방과 협력을 통한 지역상생의 가치를 실현할 계획이다. 또한, 의생명·농생명에 기반한 미래산업의 글로벌 가치 확산, 아시아 메디컬 리더 양성 거점화, 세계농업대학 설립을 통한 글로벌 농생명 인재 양성 등 생명산업 글로벌 역량강화를 위한 세부 추진 전략도 세웠다. 원광대는 오는 8월 말에 예정된 본 지정을 위해 혁신기획서를 토대로 세부적인 실행계획서를 작성해 7월 중에 제출할 예정이다. 박성태 총장은 “글로벌대학 30 사업에 예비 지정돼 기쁘고 감사하다”며

“앞으로 예정된 본 지정을 위해 남은 기간 중앙정부 유관기관과 전북특별자치도 및 익산시를 비롯한 지자체, 지역 공공기관, 기업들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원광대학교와 원광보건대학교 전 구성원의 지혜를 모아 실행계획서를 준비하겠다”며 “글로벌대학에 최종 선정돼 뚜렷한 통합과 혁신을 통한 국가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지역과 상생 발전하는 생명산업 글로벌 거점대학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익산=이재훈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의 지름길



전주매일 캠페인